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박 찬 희	장 혜 인 [‡]	김 지 범	박 태 영	황 혜 선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빈곤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경로가 부모의 긍정적 양육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때 빈곤의 측정에 있어 누적위험모델(cumulative risk model)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7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가구주와 16~19세의 청소년 506명(여자 245명, 남자 261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빈곤누적위험은 가구주의 교육수준, 직업 상태, 주거 적절성 및 가족 갈등에 대한 가구주의 응답을 기반으로 산출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빈곤 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양육행동 점수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빈곤누적위험의 영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는 빈곤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확인하였다는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긍정적 양육행동 증진이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빈곤, 빈곤누적위험, 자살생각, 양육행동, 청소년, 한국복지패널

[†] 본 연구의 일부는 2023년 APS(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Annual Convention에서 포스터발표되었음.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22S1A5A2A03051196).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장혜인,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Tel: 02-760-0490, E-mail: hichang@skku.edu

청소년 자살은 개인과 가족에게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 갈 인적 자원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Kinchin & Doran, 2018). 게다가 청소년 자살률은 다른 연령 집단의 자살률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Griffin et al., 2018), 국내 청소년 사망원인의 과반수가 자살일 만큼 그 발생 빈도가 높다(여성가족부, 2022). 자살은 예방만이 유일한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연구자와 임상가들은 자살행동(suicidal behavior)에 관심을 기울여왔는데,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및 자살시도(suicide attempt)를 포괄하는 자살행동은 실제 자살로 인한 죽음보다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이다(Nock et al., 2008b). 전세계적으로 약 19.8~24%의 청소년이 자살생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3.1~8.8%의 청소년이 자살 시도 경험을 보고하였다(Nock et al., 2008a). 국내의 경우, 2020년 기준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자살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약 2%의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 2020). 최근 COVID-19 팬데믹과 함께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이 보다 높아졌을 우려가 있는데, 2021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아동청소년의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증가한 반면, 긍정적 정서는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청소년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이 악화될 양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거나 스스로 죽고자 하는 생각으로써, 죽음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부터 자살시도에 대한 계획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Waldvogel, Rueter, & Oberg, 2008). 자살생각은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

인기에 주로 나타나는데(Nock et al., 2008a),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은 자살시도로 이어질 위험이 클 뿐 아니라(Musci et al., 2016),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기의 정신건강 문제로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Eichen et al., 2016),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효과적인 자살 예방책 수립 및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필수적이다(Shain et al., 2016).

최근에는 자살행동에 대한 전국민 대상의 자살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빈곤과 같은 환경적 위험요인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Iemmi et al., 2016). 다양한 개인 내·외부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예측인자로 지목되어 왔으나(Perkins & Hartless, 2002; Shain et al., 2016),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빈곤의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은 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의 성인기 표본에 한정되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Burrows & Laflamme, 2010; Iemmi et al., 2016). 또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은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는 임상군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왔으므로(Rubenstein, Heeren, Housman, Rubin, & Stechler, 1989), 국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표본을 사용하여 빈곤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살위험은 빈곤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빈곤이 비임상군 청소년의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Bernburg, Thorlindsson, & Sigfusdottir, 2009; Iemmi et al., 2016).

빈곤은 개인을 다양한 환경적 역경에 노출시킴으로써 만성적인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und et al., 2010). 그러나 빈곤한 개인들은 이러한 심리적 고통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자원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끝내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할 수 있다(Kim et al., 2013; Law, Khazem, Anestis, 2015).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전세계 성인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빈곤은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rges et al., 2010). 또한 최근 빈곤과 자살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검토에 포함된 과반수의 연구에서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Bantjes et al., 2016; Iemmi et al., 2016). 이처럼 다수의 연구에서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고하였으나, 그 강도는 빈곤의 측정 방법에 따라 편차가 있었으며, 몇몇 연구에서는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유의하지 않은 관계가 보고되기도 하였다(Iemmi et al., 2016; Lee, Hahm, & Park, 2013). 이러한 연구결과의 비일관성에 대한 원인으로 빈곤 측정에 대한 문제가 지목되었다(Bantjes et al., 2016).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는 주로 소득과 같은 경제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을 측정하였으나(Hoffmann, Farrell, Monuteaux, Fleegler, & Lee, 2020; Iemmi et al., 2016), 최근 연구자들은 빈곤을 단순한 물질적 자원의 결핍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및 환경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Murali & Oyeboode, 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

은 단일한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면(심미영, 김교현, 2005; Shain et al., 2016), 빈곤을 경제적 차원에 한정된 기존의 측정 방식은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에 따라 자살행동에 대한 보다 넓은 차원의 빈곤의 영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antjes et al., 2016; Iemmi et al., 2016).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빈곤은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발생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Wadsworth, Evans, Grant, Carter, & Duffy, 2016). 이러한 위험요인으로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부모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 열악한 주거 환경, 그리고 가족 내의 심한 갈등 등이 지목된 바 있다. 우선 Lewinsohn, Rohde와 Seeley(1994)의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자살행동 간의 부적 관계가 관찰되었는데,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은 가정환경에서 청소년의 학습 기회를 제한하고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위험을 상승시킬 수 있다(Bradley et al., 2001; Conger & Donnellan, 2007). 두 번째로, 청소년 자살 사망자들의 부모는 상대적으로 실업자인 경우가 많았고(Brent et al., 1993),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직업 상태가 불안정할수록 청소년의 자살생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Kim, Yoo, & Ryu, 2019). 부모의 불안정한 직업 상태는 가정의 경제적인 혼란을 야기하여 자녀의 우울 및 불안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살위험을 높일 수 있다(Andrews & Wilding, 2004; Zhai et al.,

2015). 세 번째로, 열악한 주거환경은 청소년 자살 생각의 주요 예측인자로 알려진 학습된 무력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Evans, Saltzman, & Cooperman, 2001; Rivers & Noret, 2013). 네 번째로, 빈곤은 가족 갈등과 연관이 있는데(Conger, Conger, Matthews, & Elder, 1999), 이러한 가족 갈등은 청소년의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자살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rrison, Addy, Jackson, McKeown, & Waller, 1991; Lewinsohn, Rohde, Seeley, 1996).

상기한 위험요인들은 빈곤한 가구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Evans, 2004; Evans & Kim, 2010; Evans, Li, & Whipple, 2013), 빈곤한 가구에 속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위험요인에 누적적으로 노출된다(Raver, 2004).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의 도시 지역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부모 밑에서 자라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필요한 주거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표준 이하의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더 많은 가족 내 갈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Doan, Fuller-Rowell, & Evans, 2012; Evans, 2004). 이러한 위험요인의 ‘누적(accumulation)’은 개인을 정서적으로 소진시키며, 궁극적으로 자살 위험을 상승시킬 수 있다(Rehkopf & Buka, 2006). 또한 국내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을 탐색한 심미영과 김교현(2005)의 연구에서는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무망감(hopelessness)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는데, 빈곤 관련 위험요인이 누적됨으로써 발생하는 만성적인 빈곤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우

울, 무망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Bolland, 2003; Santiago, Wadsworth, & Stump, 2011).

빈곤의 다차원적이고 누적적인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누적위험모델(cumulative risk model)이 제시되었다(Evans, Li, & Whipple, 2013; Rutter, 1979). 누적위험모델은 하나의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것에 비해 다수의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연구결과에 착안하여(Rutter, 1979, 1981; Sameroff, Seifer, & McDonough, 2004; Sameroff, 2006), 개인이 경험한 위험요인의 수가 이후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주요 인자라고 주장한다(Evans, 2004; Shonkoff, 2016). 누적위험은 개인의 생태학적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의 수를 더한 값으로, 각각의 위험요인은 주로 개념적 또는 통계적 기준에 따라 이분화되어 누적위험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합산된다(Chang, Shelleby, Cheong, & Shaw, 2012; Rutter, 1979). 누적위험모델은 각각의 위험요인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모델에 비해 측정오류가 낮다는 통계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Ettekal, Eiden, Nickerson, & Schuetze, 2019),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또한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oan, Fuller-Rowell, & Evans, 2012; Hogue, Lucassen, Jansen, Schuurmans, & Keizer, 2022; Trentacosta, Hyde, Goodlett, & Shaw, 2013).

이러한 누적위험모델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Perkins와 Hartless(2002)는 청소년의 알코올 및 약물 사용, 학대 이력, 학교 환경의 질, 교외활동 참여 등과 같은 자살생각에 대한 13가지 개별

적 예측요인을 누적위험모델로 통합하여, 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몇 가지 개별요인들은 다른 개별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누적위험은 일관적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위험요인들(우울, 불안, 불면증 등)에 누적위험모델을 적용한 중단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다(Ma et al., 2022).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누적위험모델을 제시한 박아란(2012)의 연구에서도 개인 내·외적 위험요인들을 합산한 누적위험 점수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희와 이은혜(2022)의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경험한 불운한 경험의 수가 높아질 때마다 자해 및 자살시도를 보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짐을 보이며 개인이 경험한 위험요인의 누적이 자살행동에 대한 주요한 예측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빈곤 관련 위험요인들을 ‘빈곤누적위험(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으로 합산한 후,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몇몇 연구자들이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는 추후의 경제적 회복을 통해서도 쉽게 약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빈곤과 자살 간의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여 개입의 표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Chan et al., 2014; Hong, Knapp, & McGuire, 2011). 그러나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 중 하나로 긍정적 양육행동을 지목하고자 하였다.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은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Singh & Behmani, 2018). 부모에게 충분한 돌봄을 받는다고 보고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절반 이상 낮은 자살생각을 보였으며(Toumbourou & Gregg, 2002), 어머니의 통제는 청소년의 자살시도를 부정적으로 예측하였다(Donath, Graessel, Baier, Bleich, & Hillemacher, 2014).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살위험을 큰 폭으로 상승시킨다고 알려진 무망감(Hopelessness)을 낮춤으로써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Li, Li, Wang, & Bao, 2016). 결정적으로,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양육행동의 영향은 부모의 정신병리, 청소년의 정신병리,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영향을 모두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핵심적인 보호인자로 지목되었다(Boeninger, Masyn, & Conger, 2013). 이러한 실증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근거와 함께 해석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적 심리이론(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IPTS)은 좌절된 소속감(thwarted belongingness)과 지각된 짐스러움(perceived burdensomeness)을 자살행동에 대한 주요 예측인자로 제시하는데(Joiner et al., 2009), 긍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족 내에서 충분한 소속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여

청소년이 이 두 가지 위험요인을 경험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Cero & Sifers, 2013). 두 번째로,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기본적인 세 가지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자살행동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높아지는데(Deci & Ryan, 2000),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세 가지 욕구가 쉽게 충족되도록 도움으로써 그러한 위험을 경감할 수 있다(Li, Li, Wang, & Bao, 20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긍정적 양육행동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빈곤과 자녀의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역할을 검증한 대부분의 기존 문헌들은 빈곤이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유도함으로써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Trentacosta et al., 2008; Wadsworth et al., 2016). 그러나, Ruberry, Klein, Kiff, Thompson와 Lengua(2018)은 빈곤누적위험과 양육, 아동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가 약한 수준으로 보고되어왔음을 지적하며, 빈곤 환경이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빈곤이 야기하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유지한다면, 빈곤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Forgatch & Patterson, 2010). Ruberry 등(2018)은 빈곤누적위험과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간의 정적 관계를 긍정적 양육행동이 완충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하였다. 자녀의 정신건강에 대한 양육행동의 영향은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Ho, Bluestein, & Jenkins, 2008), Lee, Huang과 Chen(2020)이 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긍정적 양육행동이 가구의 빈곤과 청소년의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에서도 긍정적 양육행동이 빈곤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절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긍정적 양육행동(positive parenting)은 정서적 지지, 일관성, 합리적 설명 및 한계 설정 등 다양한 양육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인데(Barber, Stolz, Olsen, Collins, & Burchinal, 2005; Seay, Freysteinson, & McFarlane, 2014), 긍정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연구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춰왔다(Ruberry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관여(involve) 및 감독(monitring)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모의 관여는 청소년 자살행동의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관찰되어 왔으며(Flouri & Buchanan, 2002),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도 부모의 관여는 청소년 자녀의 자살행동과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ang, La Salle, Wu, & Liu, 2021). 이처럼 부모의 관여는 지지적인 가정환경을 구축하여 긍정적인 정서 발달을 촉진하고,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위험을 낮출 수 있다(Holloway & Jonas, 2016; Morin, Bradshaw, & Berg, 2015). 부모의 감독 또한 청소년 자녀의 자살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는데(Kim, Quinn, & Moon, 2021; King et al., 2001),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감독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개방적이고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우울 증상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자살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Hamza & Willoughby, 2011; Stattin & Kerr, 2000). 또한 Bridge, Goldstein과 Brent(2006)가 자녀가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청소년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점차 느슨해지기 때문에 자녀의 자살위험이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을 고려하면,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자면, 빈곤은 청소년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으로 제안되어왔으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Burrows & Laflamme, 2010),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들은 임상군을 위주로 수행되어 왔다(Rubenstein et al., 1989). 또한 빈곤과 자살행동의 관계에 대해 몇몇 연구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빈곤을 소득 수준으로만 측정하여 빈곤의 다차원적이고 누적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전체 인구 기반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빈곤한 가정환경에 집중되어있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누적위험모델을 통해 합산한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정적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빈곤누적위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살생각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정적 관계가 약화될 것이다.

방법

연구참가자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 실시된 7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에 참여한 521명의 청소년들 중 설문에 끝까지 답하지 못한 14명의 참여자를 제외하고, 분석에 포함된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에 비해 극단적으로 높은 가구소득을 보이며 가구소득의 단변량 정규성 가정을 위배시킴으로써 회귀분석의 신뢰성을 위협하고 있는 한 명의 참여자를 제외하여 16~19세의 청소년 총 506명(여성 245명, 남성 26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M_{age}=17.84$, $SD_{age}=0.90$).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어린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을 더 많이 보고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Bridge et al., 2015), 후기 청소년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전체 자료 중 후기 청소년 표본이 포함된 자료는 2012년에 수집된 7차 자료와 2021년에 수집된 16

차 자료로 두 가지였는데, 16차 자료는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청소년의 비율이 7차 자료에 비해 현저히 작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COVID-19 팬데믹이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빈곤누적 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7차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남성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은 약 17.86세, 여성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은 약 17.83세로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총 506명의 청소년들 중 490명이 측정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11명이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으며, 4명은 휴학 중에 있었다.

또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가구주가 응답한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저소득층 가구를 일반 가구와 동일한 비율로 추출하여 표본을 구성하기 때문에 빈곤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내 전 지역에서 균등하게 표집이 이루어져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다.

측정 도구

가구소득. 가구소득으로 가구의 당해 연도 가처분소득이 사용되었다. 가처분소득은 가구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등을 합산한 전체적인 수입에서 세금, 대출이자, 임대료 등의 비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측정되었으며, 단순 소득에 비해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다는 장

점이 있다(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2005).

빈곤누적위험(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 누적위험모델을 적용한 심리학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빈곤과 함께 다뤄진 바가 있음과 동시에 본 연구에 사용된 7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에 포함되어있는 네 가지 변인(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구주의 직업, 주거적절성, 가족갈등)이 빈곤누적위험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각 변인에 대한 가구주의 응답을 바탕으로 빈곤누적위험이 산출되었다. 각 변인에 따른 위험 유무의 분포 실태를 파악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은 최종 학력에 대한 응답(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을 바탕으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0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일 경우 1점이 배정되었다.

가구주의 직업. 가구주의 직업의 경우,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대한 응답(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근무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을 바탕으로 가구주가 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에 속할 경우 0점, 그 외에 해당될 경우 1점이 배정되었다.

주거 적절성. 주거 적절성의 경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가구

주의 평가를 기반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0점, 네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열악하다고 응답한 경우 1점이 배정되었다.

가족 갈등. 가족 갈등의 경우 갈등의 빈도, 갈등 시 행동 양상 등에 대한 가구주의 응답이 측정되었다.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

표 1. 빈곤누적위험 하위요인 및 응답 분포

빈곤누적위험	N(%)
0	118(23.3%)
1	234(46.2%)
2	101(20.0%)
3	47(9.3%)
4	6(1.2%)
가구주의 교육수준	
고위험집단(69.6%)	
무학	21(4.2%)
초등학교	51(10.1%)
중학교	52(10.3%)
고등학교	228(45.1%)
저위험집단(30.4%)	
전문대학	47(9.3%)
대학교	96(19.0%)
대학원 석사	10(2.0%)
대학원 박사	1(0.2%)
가구주의 직업	
고위험집단(44.3%)	
임시직 임금근로자	75(14.8%)
일용직 임금근로자	51(10.1%)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3(0.6%)
무급가족종사자	7(1.4%)
실업자(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5(1.0%)
비경제 활동인구	83(16.4%)
저위험집단(55.7%)	
상용직 임금근로자	164(32.4%)
고용주	35(6.9%)
자영업자	83(16.4%)
주거 적절성	
고위험집단(최저주거기준 한 가지 이상 미충족)	96(19.0%)
저위험집단(최저주거기준 네 가지 모두 충족)	410(81.0%)
가족 갈등	
고위험집단(가족갈등 합산 점수 상위 25%)	82(16.2%)
저위험집단(가족갈등 합산 점수 하위 75%)	424(83.8%)

렇다”)로 평정되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갈등이 높다. 각 문항에 4나 5로 응답한 경우를 1점, 그 이하로 응답한 경우를 0점으로 코딩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제 3사분위수 미만에 속하는 경우 0점, 그 외에 1점이 배정되었다.

빈곤누적위험 점수 산출. 상기한 네 가지 변인을 위험도 유무에 따라 0 혹은 1으로 이분화한 후 합산하여 빈곤누적위험 점수를 산출하였다. 누적위험점수의 범위는 0-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경험하는 빈곤 관련 누적위험의 수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Reynolds(1988)가 개발한 자살생각 질문지(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 문항 중 서울아동패널(2011)에서 선별한 6개 문항이 사용되었다(예: “자살을 할까 생각했다”). 각 문항은 자살과 관련한 생각(수단, 시기 등)의 빈도를 측정하며, 7점 리커트 척도(0점 ‘전혀 없다.’; 6점 ‘거의 매일’)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6이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서울아동패널(2005)에서 개발한 8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 4문항(예: “부모님과 나는 학교생활이나 친구에 대해 대화한다.”)과 생활 전반에 걸쳐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정도 4문항(예: “부모님은

내가 집에 없을 때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계신다.”)을 측정하며,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항상 그렇다’)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16이었다.

자료 분석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요 연구 변인의 단변량 왜도값 및 첨도값을 산출하였다(Finney & DiStefano, 2006). 다음으로 주요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로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을 더 많이 보인다는 국내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Park, Schepp, Jang, & Koo, 2006),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자살생각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이 수행되었다. 또한 가구소득은 자살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Pan, Stewart, & Chang, 2013; Zhang, McKeown, Hussey, Thompson, & Woods, 2005), 이러한 가구소득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Hayes(2018)가 제시한 PROCESS macro 4.1의 Model 1을 사용하여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빈곤누적위험과 긍정적 양육행동 각각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해석하기 위해 두 예측변수는 평균중심화(mean-centering)되었다

(Hayes, 2018). 이후 빈곤누적위험과 긍정적 양육 행동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단순기울기 차이검정 (simple slopes difference test)을 수행하였다.

결 과

정상성 검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이 단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구소득, 빈곤누적위험, 긍정적 양육행동 및 자살생각의 단변량 왜도값과 첨도값이 산출되었다. 분석 결과, 자살생각의 단변량 왜도값이 3.437, 단변량 첨도값이 15.568로 나타나 단변량 정규성을 가정하기 위한 Kline(2010)의 기준(왜도 절대값 3 미만, 첨도 절대값 10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규성의 위반은 자살생각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종종 보고된 바 있는데(Millner, Lee, & Nock, 2017; Tucker, O'Connor, & Wingate, 2016),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에 대한 단변량 정규성을 가정하기 위한 선행연구의 방법에 따라 자살생각 점수에 1을 더하

여 자연로그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로그변환 (logarithmic transformation)은 분석할 데이터의 분포가 다소 편향되어 있을 때,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 중 하나인 정규성 가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Feng, Wang, Lu, & Tu, 2013). 로그변환한 자살생각의 단변량 왜도값은 1.210, 단변량 첨도값은 0.102로 나타나 단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기술통계와 주요 변인 간 상관이 표 2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청소년은 평균적으로 약 1개 이상의 빈곤 관련 위험요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평균적인 자살생각 점수는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약 30%의 청소년이 한 번 이상 자살에 대해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독립변수인 빈곤누적위험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r=.094, p<.05$, 조절변수인 긍정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r=-.162, p<.01$, 가구소득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r=.018, ns$.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2	3	4
1. 가구소득	1	-.393**	.179**	.018
2. 빈곤누적위험		1	-.268**	.094*
3. 긍정적 양육행동			1	-.162**
4. 청소년의 자살생각				1
평균	4712.831	1.187	12.340	0.587
표준편차	2940.544	0.937	4.242	0.903

주. 가구소득의 단위는 만 원이며, 연소득 기준임. 청소년의 자살생각 점수는 로그 변환됨.

* $p<.05$, ** $p<.01$.

독립변수인 빈곤누적위험은 조절변수인 긍정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r=-.268$, $p<.01$. 가구소득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393$, $p<.01$. 마지막으로 긍정적 양육행동과 가구소득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179$, $p<.01$.

고($t=-3.311$, $p<.01$), 평균 긍정적 양육행동 점수 또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2.290$, $p<.05$).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 검정

주요 변수들에 대한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 검정이 수행되었다(표 3).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 에 비해 평균 자살생각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관계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때 가구소득과 성별이 통제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빈곤누적위험은 성별과 가구소득을 통제한 이후에도 청

표 3. 주요 변수들의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성별	평균	표준편차	df	t 값
가구소득	남성	4780.918	2761.054	504	-0.386
	여성	4640.299	3124.497		
빈곤누적위험	남성	1.134	0.937	504	-1.448
	여성	1.244	0.935		
긍정적 양육행동	남성	11.923	4.345	504	-2.290*
	여성	12.784	4.091		
청소년의 자살생각	남성	0.458	0.802	504	-3.311**
	여성	0.724	0.983		

주. 가구소득의 단위는 만 원이며, 연소득 기준임. 청소년의 자살생각 점수는 로그 변환됨.
* $p<.05$, ** $p<.01$.

표 4.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가구소득과 빈곤누적위험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단계	예측변수	β	B	R^2	ΔR^2
1	성별	.147**	0.266**	.022**	.021**
	가구소득	.021	>0.000		
2	성별	.142**	0.256**	.033**	.011**
	가구소득	.065	>0.000		
	빈곤누적위험	.112*	0.108*		

주. 청소년의 자살생각 점수는 로그 변환됨.
* $p<.05$, ** $p<.01$.

소년의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12, p<.05$. 그러나 가구소득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beta=.065, ns$.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여 빈곤누적 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5에 제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표 5.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예측변수	청소년의 자살생각				R^2
	B	SE_B	95% LLCI	95% ULCI	
성별	0.298***	0.079	0.143	0.453	
가구소득	>0.000	>0.000	>0.000	>0.000	
빈곤누적위험(A)	0.054	0.047	-0.038	0.146	.068***
긍정적 양육행동(B)	-0.035***	0.010	-0.054	-0.016	
A×B	-0.019*	0.009	-0.038	-0.001	

주.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로그 변환됨. 빈곤누적위험과 양육행동은 평균중심화됨.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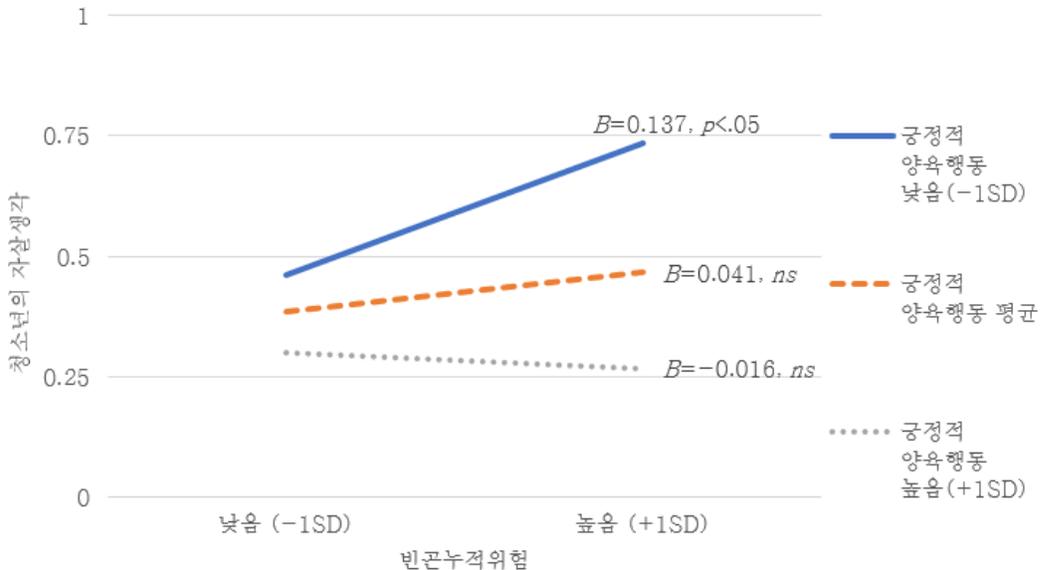


그림 1. 빈곤누적위험과 긍정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주.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로그 변환됨.

시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빈곤누적위험의 주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았으나, $B=0.054$, 95% CI=[-0.038, 0.146], 긍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유의한 주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B=-0.035$, 95% CI=[-0.054, -0.016]. 또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빈곤누적위험과 긍정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019$, 95% CI=[-0.038, -0.001]. 그림 1을 통해 제시한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긍정적 양육행동이 낮을 때에는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B=0.137$, $p<.05$, 긍정적 양육행동이 평균 수준이거나 높을 때는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B=0.041$, *ns*, $B=-0.016$, *ns*.

논 의

본 연구는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빈곤 관련 위험요인들에 누적위험 모델을 적용하여 합산한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주의 교육수준 및 직업 상태, 주거 적절성, 가족 갈등,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그리고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측정된 7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및 아동부가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데이터는 가구의 소득빈곤을 비롯해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으며, 빈곤층에 속한 가구를 과대표집하는 특성이 있어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잘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는 빈곤이 개인의 발달의 여러 영역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함으로써 개인을 정서적으로 소진시키고,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 또한 저하시켜 결국 정신건강의 심각한 악화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이론과 유사한 맥락이다(Rehkopf & Buka, 2006; Wadsworth et al., 2016). 또한 이는 빈곤한 환경에 속한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더 많은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를 보이고, 결국 자살로 인한 죽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Thompson, Alonzo, Hu, & Hasin, 2017; Yoon, Noh, Han, Jung-Choi, & Khang, 2015).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성별과 가구소득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가구소득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성인이 이후 개인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개인의 생애 전반에 대한 소득의 영향이 상승하지만(Thomson et al., 2022),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에 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적 위험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Yoshikawa, Aber, & Beardslee, 2012). 실제로 국내에서도 청년층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득과 자살생각 간의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어 온 반면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자살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비일관적인 양상을 보인다(Raschke, Mohsenpour, Aschentrup,

Fischer, & Wrona, 2022; Shin et al., 2009). 본 연구결과는 빈곤을 소득으로만 측정하는 기존방식이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혼재된 결과의 원인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에 힘을 실는다(Iemmi et al., 2016; Peverill et al., 2021). 또한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한 선행연구들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심미영, 김교현, 2005). 본 연구는 단순히 낮은 소득으로 대표된 빈곤의 다차원적 효과에서 소득의 효과를 분리하고 다양한 빈곤 관련 위험요인을 누적위험모델을 통해 구성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빈곤에 대한 누적위험모델이 빈곤을 측정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누적위험모델은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누적위험모델은 누적위험에 포함되는 모든 위험요인이 개인에게 동등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Evans, Li, & Whipple, 2013), 최근 연구에서는 개인이 특정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발달적 시기와 맥락에 따라 위험요인의 영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Ellis, Sheridan, Belsky, & McLaughlin, 2022). 둘째, 개인이 경험한 위험요인의 심각도 수준에 따라 자살생각에 대한 각 위험요인의 영향은 다를 수 있지만, 누적위험모델은 개인이 경험한 위험요인의 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도 수준은 고려하지 못한다. 자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예방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빈곤 관련 위험요인들을 단순히 탐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인

이 생애 전반에서 이러한 빈곤 관련 위험요인들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하며(Iemmi et al., 2016),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인, 새로운 방식으로 측정한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빈곤은 자살생각에 대한 유일한 위험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자살 문헌에서 다소 간과되어 온 환경적 위험요인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빈곤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자살생각은 낮은 자아존중감, 충동성 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안세영, 최보영, 김종학, 2015; 최인재, 2014), 이러한 개인 내적 요인은 발달 과정에 거쳐 환경적 위험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자살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n et al., 2019). 정신병리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위험요인들(행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정신병리에 대한 발전된 이해를 위해 권장되고 있는바(Morris et al., 2022),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개인 내적 특성과 발달 구간에 걸쳐 어떤 양상으로 상호작용하며 자살위험을 높이는지에 대한 기제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

둘째,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정적 관계를 긍정적 양육행동이 완충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2가 지지되었다. 긍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양육과 청소년의 자살행동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지지된 바 있다(Singh & Behmani, 2018). 부모의 관여는 부모

로 하여금 청소년 자녀의 정서 및 행동상의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리도록 도움으로써 자녀의 자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Morin et al., 2015), 부모의 감독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정신병리가 자살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Fosco, Stormshak, Dishion, & Winter, 2012; Moon, Kim, & Parrish, 2020).

이처럼 청소년의 자살위험을 경감하는 것으로 알려진 긍정적 양육행동은 빈곤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 또한 완충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자살행동의 유의한 예측인자들 중 하나인 우울 증상과 청소년의 자살행동 간의 정적 관계가 높은 수준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의해 약화된 것을 발견한 선행연구(Greening, Stoppelbein, & Luebbe, 2010)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낮은 가구소득, 부모의 이혼 및 별거,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아동기 역경과 아동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검증한 Yamaoka와 Bard(201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아동기 역경의 영향을 큰 폭으로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uberry 등(2018)은 빈곤누적위험과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정신건강 간의 상관계수가 높지 않게 보고되어왔음을 언급하며 빈곤누적위험과 아동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조절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빈곤누적위험과 긍정적 양육행동,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상관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상관은 가구의 위험요인을 합산하여

구성한 누적위험과 아동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역할을 검증한 Trentacosta 등(2008)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빈곤과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기존 선행연구는 빈곤이 부모의 양육행동의 질을 악화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하며 양육행동의 매개효과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으나(Wadsworth et al., 2016), 본 연구는 빈곤 환경에서도 부모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빈곤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수 있음을 밝히며 양육행동의 조절효과에 주목해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였으나, 양육행동은 단순히 부모의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caramella, Sohr-Preston, Mirabile, Robinson, & Callahan, 2008; 장혜인, 2015). 청소년의 내면화 증상과 양육행동 간의 상호작용은 선행연구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어왔다(Buist, Dekovic, Meeus, & Van Aken, 2004; Fanti, Heinrich, Brookmeyer, & Kuperminc, 2008). 또한 우울은 빈곤 청소년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이며 자살생각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Dashiff, DiMicco, Myers, & Sheppard, 2009; 심미영, 김교현, 2005), Fotti, Katz, Affi와 Cox(200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중단 자료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재검증함으로써 빈곤 환경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직접적으로 탐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양육행동의 영향은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자살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16~19세 청소년들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나(Bridge et al., 2015),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양육행동의 영향은 청소년이 만 12~13세일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King, Vidourek, Yockey, & Merianos, 2018). 후기 청소년들에게서도 양육행동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는 유의하였고(King, Vidourek, Yockey, & Merianos, 2018), 후기 청소년 표본을 사용한 연구에서 긍정적 양육행동이 가구의 빈곤과 청소년의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는 것을 미루어볼 때 후기 청소년기에서도 양육행동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Lee, Huang, & Chen, 2020). 그러나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양육행동의 효과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본다면 개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20년 기준 청소년 자살자는 957명으로 2017년 대비 약 33%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보건복지부, 2022). 청소년 자살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예방적 개입 및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Bantjes et al., 2016; Burrows & Laflamme, 2010). 자살행동에 대한 고위험 집단을 조기에 규명하여 개입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은 자살 예방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략인데(De Leo, 2002),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빈곤 수준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히며 빈곤 가구에 속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위험을 스크리닝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경감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이때 가구소득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청소년이 생활환경에서 노출되는 빈곤 관련 위험요인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자살 고위험군 규명에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 감소를 자살 예방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간주한 국가는 매우 드문 실정이고(Platt, 2011), 국내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은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될 뿐 빈곤 환경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우선적인 자살위험 스크리닝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빈곤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 입안을 위해 고려된 바가 거의 없다(보건복지부, 2022).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국내에서는 24시간 응대가 가능한 전화상담 및 사이버상담을 제공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서조절 증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 및 대처능력 부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서고운, 2021).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국내에서는 빈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위험에 대한 스크리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빈곤 청소년의 자살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경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빈곤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지원으로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없으며(Chan et al., 2014; Hong et al., 2011), 빈곤한 환경에 속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한 빈곤 가정의 자녀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인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녀의 정신건강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Wadsworth et al., 2016). 본 연구는 빈곤누적 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빈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빈곤한 가구의 부모에게 아동 중심적인 양육행동을 교육함으로써 안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을 돕는 개입 프로그램이 빈곤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에 큰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국외연구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어왔으나, 국내에서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증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개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Brotman et al., 2011; 정교영, 신희천, 2011). 본 연구결과는 빈곤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증진하는 개입 프로그램을 사회 전체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빈곤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경감하기 위한 양육행동 증진 프로그램의 좋은 예시들 중 하나로 P-CARE가 있다. P-CARE는 국외에서 청소년 자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된 양육행동 증진 프로그램으로, 사회 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 동기강화면담(motivational interviewing), 사회적 지지 및 기술 습득 이론(skills acquisition theory) 등을 기반하고 있다(Hooven, 2013). P-CARE는 총 두 번, 90분 분량의 가정방문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방문은 자녀가 자살과 관련된 신호를 보내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부모가 직접 고안하게 한 후, 접근 방식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에게 ‘적극적 듣기(active listening)’ 등의 의사소통 전략을 교육하고, 자녀의 심리적 고통에 대해 부모가 도움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두 번째 방문은 첫 번째 방문으로부터 약 2주 후에 진행되며,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상태를 보다 기민하게 인지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두 번의 가정방문이 종료되고 2.5개월 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는 프로그램을 통해 배웠던 기술들을 상기시키고, 자녀가 보고하는 심리적 문제에 부모가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를 받는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심리적 고통에 온정적 태도로 관여하고, 자녀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자녀의 일상생활을 적절히 감독할 수 있게 된다.

P-CARE는 짧은 기간 내에 적은 방문 횟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빈곤 가구의 부모들에게 적용하기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빈곤한 부모의 불규칙적인 근무시간 등으로 인해 가정 방문이 어렵다면, 이러한 P-CARE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최근 메

타분석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양육행동 증진 프로그램 또한 자녀의 문제 행동과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는데(Spencer, Topham, & King, 2020), 이러한 온라인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고, 참가에 필요한 비용도 적기 때문에 빈곤 가구의 부모도 쉽게 참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가족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Hooven, 2013), 국내에서는 자녀의 자살위험을 낮추기 위해 개발된 부모의 양육행동 증진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빈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양육행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양육행동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그러한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측정도구의 선정에 있어 일부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및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제안되었으나(Lewinsohn et al., 1994; Zhai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 및 고용 상태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청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고용 상태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Kim, Kim, Yoo, & Ryu, 2019),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고용 상태를 각각 측정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면면접조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자살생각을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Nock et al., 2008a). 둘째, 빈곤의 수준 및 차원,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모두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본 연구는 2012년에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결과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COVID-19 팬데믹 이후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되어 자살위험이 증대됨과 동시에 빈곤층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도 함께 상승했음을 고려하면 COVID-19 팬데믹이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Patel et al., 2020),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기적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결과를 반복검증하고 COVID-19 팬데믹이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친 영향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변수들의 선후 관계를 확신하기 어렵다. 빈곤 환경이 얼마나 만성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따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Dashiff et al., 2009),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 설계를 통해 빈곤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하여,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가 시간이 흘러도 유지되는지, 혹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

화하는지를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이후 청소년이 성인이 된 시점의 빈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증하여 빈곤의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양상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빈곤을 경험하는 청소년 다수를 대상으로 빈곤의 다차원적 및 누적적 특성을 반영한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역할을 함께 규명한 초기의 시도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특히 빈곤의 다차원 요인의 역할을 엄정하게 확인하기 위해 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본 연구는 국가나 지역의 빈곤 수준과 자살률 간의 관계를 관찰한 기존의 관련 선행연구와 달리(Bantjes et al., 2016; Iemmi et al., 2016), 개인적 수준의 빈곤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구별된다. 나아가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긍정적 양육행동이 완충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빈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개입하기 위한 효과적인 표적을 제시하였다는 임상적 함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은희, 이인혜 (2022). 불운한 아동기 경험이 성인기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7(4), 627-648.

박아란 (2013). 누적 위험요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

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보건복지부 (2022). 2022 자살예방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서고운 (2021).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아동패널 (2005). 서울 아동발달 및 복지실태조사 설문지. <http://www.childpanel.com>에서 자료 얻음.

서울아동패널 (2011). 서울 아동·청소년 발달조사 설문지(청소년용). <http://www.childpanel.com>에서 자료 얻음.

심미영, 김교현 (2005). 한국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성과 발달시기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313-325.

안세영, 김종학, 최보영 (2015).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3), 385-405.

여성가족부 (2022). 2022년 청소년 통계. 서울: 여성가족부.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혜인 (2015).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교류모형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2), 19-39.

정교영, 신희천 (2011). 자기결정이론을 근거로 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03-634.

질병관리청 (2020).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집. <https://www.kdca.go.kr/yhs/home.jsp>에서 자료 얻음.

최인재 (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1(10), 219-24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청소년 상담 이슈페이퍼: 코로나19 이후 1년, 청소년 정신건강 변화 기록. <https://www.kyci.or.kr/fileup/issuepaper/Issue>

- Paper_202105.pdf에서 자료 얻음.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CA: Sage.
- Andrews, B., & Wilding, J. M. (2004). The relation of depression and anxiety to life stress and achievement in student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5*(4), 509-521.
- Bantjes, J., Iemmi, V., Coast, E., Channer, K., Leone, T., McDaid, D., ... & Lund, C. (2016). Poverty and suicide research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systematic mapping of literature published in English and a proposed research agenda. *Global Mental Health, 3*, E32. doi:org/10.1017/gmh.2016.27
- Barber, B. K., Stolz, H. E., Olsen, J. A., Collins, W. A., & Burchinal, M.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4), 1-147.
- Bernburg, J. G., Thorlindsson, T., & Sigfusdottir, I. D. (2009). The spreading of suicidal behavior: The contextual effect of community household poverty o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and the mediating role of suicide sugges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68*(2), 380-389.
- Boeninger, D. K., Masyn, K. E., & Conger, R. D. (2013). Testing alternative explanations for the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suicidal problem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3*(2), 331-344.
- Bolland, J. M. (2003). Hopelessness and risk behaviour among adolescents living in high-poverty inner-city neighbourhoods. *Journal of Adolescence, 26*(2), 145-158.
- Borges, G., Nock, M. K., Abad, J. M. H., Hwang, I., Sampson, N. A., Alonso, J., ... & Kessler, R. C. (2010). Twelve-month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suicide attempts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Mental Health Surveys.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71*(12), 1617-1628.
- Bradley, R. H., Corwyn, R. F., McAdoo, H. P., & García Coll, C. (2001). The home environments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part I: Variations by age, ethnicity, and poverty status. *Child Development, 72*(6), 1844-1867.
- Brent, D. A., Perper, J. A., Moritz, G., Baugher, M., Roth, C., Balach, L., & Schweers, J. (1993). Stressful life events, psychopathology, and adolescent suicide: A case control stud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3*(3), 179-187.
- Bridge, J. A., Asti, L., Horowitz, L. M., Greenhouse, J. B., Fontanella, C. A., Sheftall, A. H., ... & Campo, J. V. (2015). Suicide trends among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from 1993 to 2012. *JAMA Pediatrics, 169*(7), 673-677.
- Bridge, J. A., Goldstein, T. R., & Brent, D. A. (2006). Adolescent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3-4), 372-394.
- Brotman, L. M., Calzada, E., Huang, K. Y., Kingston, S., Dawson McClure, S., Kamboukos, D., ... & Petkova, E. (2011). Promoting effective parenting practices and preventing child behavior problems in school among ethnically diverse families from underserved, urban communities. *Child Development, 82*(1), 258-276.
- Buist, K. L., Dekovic, M., Meeus, W. H. J., & Van Aken, M. A. G. (2004).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ce, 27*, 251-266.
- Burrows, S., & Laflamme, L. (2010). Socioeconomic disparities and attempted suicide: state of

- knowledge and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e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jury Control and Safety Promotion*, 17(1), 23-40.
- Cero, I., & Sifers, S. K. (2013). Parenting behavior and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e: A mediated moderation analysis with adolesc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0(3), 987-992.
- Chan, C. H., Caine, E. D., You, S., Fu, K. W., Chang, S. S., & Yip, P. S. F. (2014). Suicide rates among working-age adults in South Korea before and after the 2008 economic crisis.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68(3), 246-252.
- Chang, H., Shelleby, E. C., Cheong, J., & Shaw, D. S. (2012). Cumulative risk, negative emotionality, and emotion regulation as predictors of social competence in transition to school: A mediated moderation model. *Social Development*, 21(4), 780-800.
- Conger, R. D., & Donnellan, M. B. (2007). An interactionist perspective on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human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175-199.
- Conger, R. D., Conger, K. J., Matthews, L. S., & Elder Jr, G. H. (1999). Pathways of economic influence on adolescent adjust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4), 519-541.
- Dashiff, C., DiMicco, W., Myers, B., & Sheppard, K. (2009). Poverty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22(1), 23-32.
- De Leo, D. (2002). Why are we not getting any closer to preventing suicide?.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1(5), 372-374.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oan, S. N., Fuller-Rowell, T. E., & Evans, G. W. (2012). Cumulative risk and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maternal responsiveness and self-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8(6), 1529-1539.
- Donath, C., Graessel, E., Baier, D., Bleich, S., & Hillemacher, T. (2014). Is parenting style a predictor of suicide attempts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adolescents? *BMC Pediatrics*, 14(1), 1-13.
- Eichen, D. M., Kass, A. E., Fitzsimmons-Craft, E. E., Gibbs, E., Trockel, M., Taylor, C. B., & Wilfley, D. E. (2016).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al ideation in relation to eating and general psychopathology among college-age women. *Psychiatry Research*, 235, 77-82.
- Ellis, B. J., Sheridan, M. A., Belsky, J., & McLaughlin, K. A. (2022). Why and how does early adversity influence development? Toward an integrated model of dimensions of environmental experi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4(2), 447-471.
- Ettekal, I., Eiden, R. D., Nickerson, A. B., & Schuetze, P. (2019). Comparing alternative methods of measuring cumulative risk based on multiple risk indicators: Are there differential effects on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s? *PloS one*, 14(7), e0219134. doi.org/10.1371/journal.pone.0219134
- Evans, G. W. (2003). The built environment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Urban Health*, 80(4), 536-555.
- Evans, G. W. (2004). The environment of childhood poverty. *American Psychologist*, 59(2), 77-92.
- Evans, G. W., & Kim, P. (2010). Multiple risk exposure as a potential explanatory mechanism

- for the socioeconomic status-health gradient.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18(1), 174-189.
- Evans, G. W., Li, D., & Whipple, S. S. (2013). Cumulative risk and child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139(6), 1342-1396.
- Evans, G. W., Saltzman, H., & Cooperman, J. L. (2001). Housing quality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health. *Environment and Behavior*, 33(3), 389-399.
- Fanti, K. A., Henrich, C. C., Brookmeyer, K. A., & Kuperminc, G. P. (2008). Toward a transactional model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quality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8(2), 252-276.
- Feng, C., Wang, H., Lu, N., & Tu, X. M. (2013). Log transformation: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in biomedical research. *Statistics in Medicine*, 32(2), 230-239.
- Finney, S. J., & DiStefano, C. (2006). Non-normal and categorical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second course*, 10(6), 269-314.
- Flouri, E., & Buchanan, A. (2002). The protective role of parental involvement in adolescent suicide. *Crisis: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23(1), 17-22.
- Forgatch, M. S., & Patterson, G. R. (2010). Parent Management Training-Oregon Model: An intervention for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J. R. Weisz & A. E. Kazdin (Eds.), *Evidence-based psychotherap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59-177). NY: The Guilford Press.
- Fosco, G. M., Stormshak, E. A., Dishion, T. J., & Winter, C. E. (2012). Family relationships and parental monitoring during middle school as predictors of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1(2), 202-213.
- Fotti, S. A., Katz, L. Y., Afifi, T. O., & Cox, B. J. (2006). The associations between peer and parental relationships and suicidal behaviours in early adolescents.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1(11), 698-703.
- Garrison, C. Z., Addy, C. L., Jackson, K. L., McKeown, R. E., & Waller, J. L. (1991). A longitudinal study of suicidal ideation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0(4), 597-603.
- Greening, L., Stoppelbein, L., & Luebbe, A. (2010).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ing styles on African-American and Caucasian children's suicidal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4), 357-369.
- Griffin, E., McMahon, E., McNicholas, F., Corcoran, P., Perry, I. J., & Arensman, E. (2018). Increasing rates of self-harm among childre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 10-year national registry study 2007-2016.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3(7), 663-671.
- Hamza, C. A., & Willoughby, T. (2011). Perceived parental monitoring, adolescent disclosure,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 longitudinal examin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7), 902-915.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NY: The Guilford Press.
- Ho, C., Bluestein, D. N., & Jenkins, J. M. (2008). Cultural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children's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44(2), 507-522.
- Hoffmann, J. A., Farrell, C. A., Monuteaux, M. C., Flegler, E. W., & Lee, L. K. (2020). Association

- of pediatric suicide with county-level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2007-2016. *JAMA Pediatrics*, *174*(3), 287-294.
- Hogve, S. I., Lucassen, N., Jansen, P. W., Schuurmans, I. K., & Keizer, R. (2022). Cumulative risk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childhood: Compensatory and buffering roles of family functioning and family regularity. *Adversity and Resilience Science*, *3*(2), 149-167.
- Holloway, S. D., & Jonas, M. (2016). Families, culture, and schooling: A critical review of theory and research. In K. R. Wentzel & G. B. Ramani (Eds.), *Handbook of Social Influences in School Contexts* (pp. 258-272). NY: Routledge.
- Hong, J., Knapp, M., & McGuire, A. (2011). Income-related inequalities in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suicidal behaviour: a 10-year trend following economic crisis. *World Psychiatry*, *10*(1), 40-44.
- Hooven, C. (2013). Parents-CARE: A Suicide Prevention Program for Parents of At Risk Youth.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26*(1), 85-95.
- Iemmi, V., Bantjes, J., Coast, E., Channer, K., Leone, T., McDaid, D., ... & Lund, C. (2016). Suicide and poverty in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The Lancet Psychiatry*, *3*(8), 774-783.
- Joiner Jr, T. E., Van Orden, K. A., Witte, T. K., Selby, E. A., Ribeiro, J. D., Lewis, R., & Rudd, M. D. (2009). Main predictions of the interpersonal - 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Empirical tests in two samples of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3), 634-646.
- Kinchin, I., & Doran, C. M. (2018). The cost of youth suicide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5*(4), 672. doi.org/10.3390/ijerph15040672
- Kim, P., Evans, G. W., Angstadt, M., Ho, S. S., Sripada, C. S., Swain, J. E., ... & Phan, K. L. (2013). Effects of childhood poverty and chronic stress on emotion regulatory brain function in adulthoo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0*(46), 18442-18447.
- Kim, S. H., Kim, J. S., Yoo, H. Y., & Ryu, E. (2019). Parental occupational status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 cross-sectional secondary data analysi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45*, e57-e63. doi:org/10.1016/j.pedn.2019.01.005
- Kim, Y. J., Quinn, C. R., & Moon, S. S. (2021). Buffer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parental monitoring on suicide. *Health & Social Work*, *46*(1), 42-50.
- King, R. A., Schwab-Stone, M., Flisher, A. J., Greenwald, S., Kramer, R. A., Goodman, S. H., ... & Gould, M. S. (2001). Psychosocial and risk behavior correlates of youth suicide attempts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0*(7), 837-846.
- King, K. A., Vidourek, R. A., Yockey, R. A., & Merianos, A. L. (2018). Impact of parenting behaviors on adolescent suicide based on age of adolesc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12), 4083-4090.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ed.), NY: Guilford Press
- Law, K. C., Khazem, L. R., & Anestis, M. D. (2015). The role of emotion dysregulation in suicide as considered through the ideation to action framework.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3*, 30-35.
- Lee, H. Y., Hahm, M. I., & Park, E. C. (2013).

- Differential association of socio-economic status with gender- and age-defined suicidal ideation among adult and elderly individuals in South Korea. *Psychiatry Research*, 210(1), 323-328.
- Lee, M. C., Huang, N., & Chen, C. Y. (2020). Effects of childhood adversity trajectories on mental health outcomes in late adolescence: The buffering role of parenting practices in Taiwan. *Child Abuse & Neglect*, 109, 104705. doi:org/10.1016/j.chiabu.2020.104705
- Lewinsohn, P. M., Rohde, P., & Seeley, J. R. (1994).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future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2), 297-305.
- Lewinsohn, P. M., Rohde, P., & Seeley, J. R. (1996).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prevalence, risk factors, and clinical implica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3(1), 25-46.
- Li, D., Li, X., Wang, Y., & Bao, Z. (2016). Parenting and Chinese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The mediating role of hopelessnes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5), 1397-1407.
- Lund, C., Breen, A., Flisher, A. J., Kakuma, R., Corrigall, J., Joska, J. A., ... & Patel, V. (2010). Poverty and common mental disorders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Social Science & Medicine*, 71(3), 517-528.
- Ma, Z., Wang, D., Zhao, J., Zhu, Y., Zhang, Y., Chen, Z., ... & Fan, F. (2022).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multiple mental health problem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11, 425-431.
- Millner, A. J., Lee, M. D., & Nock, M. K. (2017). Describing and measuring the pathway to suicide attempts: A preliminary stud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7(3), 353-369.
- Moon, S. S., Kim, Y. J., & Parrish, D. (2020). Understanding the linkages between parental monitoring, school academic engagement, substance use, and suicide among adolescents in US. *Child & Youth Care Forum*, 49(6), 953-968.
- Morin, H. K., Bradshaw, C. P., & Berg, J. K. (2015). Examining the link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adjustment problems in adolescents: The role of connectedness and parent engagement. *Psychology of Violence*, 5(4), 422-432.
- Morris, S. E., Sanislow, C. A., Pacheco, J., Vaidyanathan, U., Gordon, J. A., & Cuthbert, B. N. (2022). Revisiting the seven pillars of RDoC. *BMC Medicine*, 20(1), 220. doi:org/10.1186/s12916-022-02414-0
- Murali, V., & Oyeboode, F. (2004). Poverty, social inequality and mental health. *Advances in Psychiatric Treatment*, 10(3), 216-224.
- Musci, R. J., Hart, S. R., Ballard, E. D., Newcomer, A., Van Eck, K., Ialongo, N., & Wilcox, H. (2016). Trajectories of suicidal ideation from sixth through tenth grades in predicting suicide attempts in young adulthood in an urban African American cohort.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6(3), 255-265.
- Nock, M. K., Borges, G., Bromet, E. J., Cha, C. B., Kessler, R. C., & Lee, S. (2008a).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Epidemiologic Reviews*, 30(1), 133-154.
- Nock, M. K., Borges, G., Bromet, E. J., Alonso, J., Angermeyer, M., Beautrais, A., ... & Williams, D. (2008b). Cross-national prevalence and risk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 plans and attempt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3(2), 98-105.
- Pan, Y. J., Stewart, R., & Chang, C. K. (2013). Socioeconomic disadvantage, mental disorders and

- risk of 12-month suicide ideation and attempt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NCS-R) in U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8(1), 71-79.
- Park, H. S., Schepp, K. G., Jang, E. H., & Koo, H. Y. (2006).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by gender in South Korea. *Journal of School Health*, 78(5), 181-188.
- Patel, J. A., Nielsen, F. B. H., Badiani, A. A., Assi, S., Unadkat, V. A., Patel, B., ... & Wardle, H. (2020). Poverty, inequality and COVID-19: the forgotten vulnerable. *Public Health*, 183, 110-111.
- Perkins, D. F., & Hartless, G. (2002). An ecological risk-factor examination of suicide ideation and behavior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7(1), 3-26.
- Peeverill, M., Dirks, M. A., Narvaja, T., Herts, K. L., Comer, J. S., & McLaughlin, K. A. (2021).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psychopathology in the United States: A meta-analysis of population-based studi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83, 101933. doi:org/10.1016/j.cpr.2020.101933
- Platt, S. (2011). Inequalities and suicidal behaviour. In R.C. O'Connor, S. Platt and J. Gordon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Prevention: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pp. 211-234). John Wiley & Sons: Chichester England.
- Raschke, N., Mohsenpour, A., Aschentrup, L., Fischer, F., & Wrona, K. J. (2022). Socioeconomic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behaviors in South Korea: Systematic review on the current state of evidence. *BMC Public Health*, 22, 129. doi:org/10.1186/s12889-022-12498-1
- Raver, C. C. (2004). Placing emotional self-regulation in sociocultural and socioeconomic contexts. *Child Development*, 75(2), 346-353.
- Rehkopf, D. H., & Buka, S. L.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suicide and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al areas: a systematic review. *Psychological Medicine*, 36(2), 145-157.
- Reynolds, W. M. (1988). SIQ,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ivers, I., & Noret, N. (2013). Potential suicide ideation and its association with observing bullying at school.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3(1), S32-S36.
- Rubenstein, J. L., Heeren, T., Housman, D., Rubin, C., & Stechler, G. (1989). Suicidal behavior in "normal" adolescent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1), 59-71.
- Ruberry, E. J., Klein, M. R., Kiff, C. J., Thompson, S. F., & Lengua, L. J. (2018). Parenting as a moderator of the effects of cumulative risk on children's social-emotional adjustment and academic readines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7(3), e2071. doi:org/10.1002/icd.2071
- Rutter, M. (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W. Kent & J.E. Rolf (Eds.), *Primary Prevention in Psychopathology. Vol. 8: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pp. 49-74).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Rutter, M. (1981).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Some issues and some ques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4), 323-356.
- Sameroff, A. (2006). Identifying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Healthy Child Development. In A. Clarke-Stewart & J. Dunn (Eds.), *Families count: Effects o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53-7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meroff, A., Seifer, R., & McDonough, S. C. (2004). Contextual contributors to the assessment of

- infant mental health. In DelCarmen-Wiggins, R., & Carter, A. (Eds.), *Handbook of infant, toddler, and preschool mental health assessment* (pp. 61-76). Oxford University Press.
- Santiago, C. D., Wadsworth, M. E., & Stump, J. (2011). Socioeconomic status,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poverty-related stress: Prospective effects on psychological syndromes among diverse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2*(2), 218-230.
- Scaramella, L. V., Sohr Preston, S. L., Mirabile, S. P., Robison, S. D., & Callahan, K. L. (2008). Parenting and children's distress reactivity during toddlerhood: An examination of direction of effects. *Social Development, 17*(3), 578-595.
- Seay, A., Freysteinson, W. M., & McFarlane, J. (2014). Positive parenting. *Nursing Forum 49*(3), 200-208.
- Shain, B., Braverman, P. K., Adelman, W. P., Alderman, E. M., Breuner, C. C., Levine, D. A., ... & O'Brien, R. F. (2016). Suicide and suicide attempts in adolescents. *Pediatrics, 138*(1), e20161420. doi:org/10.1542/peds.2016-1420
- Shin, Y. M., Chung, Y. K., Lim, K. Y., Lee, Y. M., Oh, E. Y., & Cho, S. M. (2009). Childhood predictors of deliberate self-harm behavior and suicide ideation in Korean adolescents: a prospective population-based follow-up study.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4*(2), 215-222.
- Shonkoff, J. P. (2016). Capitalizing on advances in science to reduce the health consequences of early childhood adversity. *JAMA Pediatrics, 170*(10), 1003-1007.
- Singh, V., & Behmani, R. K. (2018).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 suicide ideation: A review. *Parenting, 3*(2), 1245-1252.
- Spencer, C. M., Topham, G. L., & King, E. L. (2020). Do online parenting programs create change?: A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4*(3), 364-374.
- Stattin, H., & Kerr, M. (2000).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4), 1072-1085.
- Thompson, R. G., Alonzo, D., Hu, M. C., & Hasin, D. S. (2017). Substance use disorders and poverty as prospective predictors of adult first-time suicide ideation or attempt in the United Stat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53*(3), 324-333.
- Thomson, R. M., Igelström, E., Purba, A. K., Shimonovich, M., Thomson, H., McCartney, G., ... & Katikireddi, S. V. (2022). How do income changes impact on mental health and wellbeing for working-age adul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Lancet Public Health, 7*(6), e515-e528. doi:org/10.1016/S2468-2667(22)00058-5
- Toumbourou, J. W., & Gregg, M. E. (2002). Impact of an empowerment-based parent education program on the reduction of youth suicide risk facto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1*(3), 277-285.
- Trentacosta, C. J., Hyde, L. W., Goodlett, B. D., & Shaw, D. S. (2013). Longitudinal prediction of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in adolescent males from multiple risk domain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4*(4), 561-572.
- Trentacosta, C. J., Hyde, L. W., Shaw, D. S., Dishion, T. J., Gardner, F., & Wilson, M. (2008). The relations among cumulative risk, parenting, and behavior problems during early childhoo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11), 1211-1219.
- Tucker, R. P., O'Connor, R. C., & Wingate, L. R. (2016).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umination styles, hope, and suicide

- ideation through the lens of the inte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l of suicidal behavior.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20(4), 553-566.
- Wadsworth, M. E., Evans, G. W., Grant, K., Carter, J. S., & Duffy, S. (2016). Poverty and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E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Risk, Resilience, and Intervention* (pp. 136 - 179). John Wiley & Sons.
- Waldvogel, J. L., Rueter, M., & Oberg, C. N. (2008). Adolescent suicide: risk factors and prevention strategies. *Current Problems In Pediatric and Adolescent Health Care*, 38(4), 110-125.
- Wan, Y., Chen, R., Ma, S., McFeeters, D., Sun, Y., Hao, J., & Tao, F. (2019). Association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social support with self-injurious behaviour and suicidality in adolescent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214(3), 146-152.
- Wang, C., La Salle, T., Wu, C., & Liu, J. L. (2022). Do parental involvement and adult support matter for students'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 in high school? *School psychology review*, 51(3), 329-342.
- Yamaoka, Y., & Bard, D. E. (2019). Positive parenting matters in the face of early adversit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56(4), 530-539.
- Yoon, T. H., Noh, M., Han, J., Jung-Choi, K., & Khang, Y. H. (2015). Deprivation and suicide mortality across 424 neighborhoods in Seoul, South Korea: a Bayesian spati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60(8), 969-976.
- Yoshikawa, H., Aber, J. L., & Beardslee, W. R. (2012). The effects of poverty on the mental, emotional, and behavioral health of children and youth: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merican Psychologist*, 67(4), 272-284.
- Zhai, H., Bai, B., Chen, L., Han, D., Wang, L., Qiao, Z., ... & Yang, Y. (2015). Correlation between family environment and suicidal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2(2), 1412-1424.
- Zhang, J., Mckeown, R. E., Hussey, J. R., Thompson, S. J., & Woods, J. R. (2005). Gender differences in risk factors for attempted suicide among young adults: findings from the Third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nnals of Epidemiology*, 15(2), 167-174.

원고접수일: 2023년 3월 24일

논문심사일: 2023년 4월 17일

게재결정일: 2023년 7월 7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3, Vol. 28, No. 4, 969 - 997

The Association between 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s a Moderator

Chanhee Park Hyein Chang Jibum Kim Tae-Young Pak Hyesun Hwang
Department of Psychology Department of Sociology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We examined whether 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 a composite measure of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overty, predicts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and whether positive parenting style moderates this relationship. We used the 7th wave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study involved personal interviews with 506 adolescents (245 females, 261 males) and their families. The head of the household provided information on the householders' educational attainment, occupational status, housing quality, and family conflicts, which were used to develop the 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 measure. The adolescents provided information on their suicidal ideation and perception of their parents' parenting style.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d Process Macro demonstrated a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 and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dditionally, we found that positive parenting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 and suicidal ideation. Specifically, we found that adolescents who perceived low levels of positive parenting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suicidal ideation. Our findings have clinical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and early identification and prevention of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Keywords: poverty; 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 suicidal ideation; parenting behavior; adolescent